

“제주 본향당 이야기”

- 구좌읍 김녕리 궤네깃당 신화 -

1. 채록대상자 : 서순실/심방
2. 채록 일자 : 2017.06.19

이제 김녕이 옛날엔 천하대천마을 아주 큰 마을이었수다. 큰 마을인데 당신이 산에도 있고 마을 중심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겐 옛날 어머니들은 모든 일을 음력 정월달에 정성을 들여서 이제 당에도 갔다 오고, 요왕에도 갔다 오고 집에 서서 일 년을 무사고를 하는 그런 의례를 치렀어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켜오고 지켜온 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가고 있고 앞으로 세대에도 이 마을에 인간이 존재할 때까지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신이죠. 그래서 제일 큰당은 ‘큰도안전 큰도부인님’은 강남천자국 안가름에서 삼형제가 들어와서, 큰형님은 조천 정중부인에, 두 번째는 김녕, 세 번째는 열룬이(온평리)에 ‘명호안전 명호부인’인데 이제 이 당은 큰당, 장적문서 호적문서, 일 년에 이제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외국, 육지 어디를 가드레도 일 년에 총괄하는 큰당 한집.

그리고 성세기. ‘성세기 한집’은 바다에 어부, 해녀 그러고 저 바다를 건너서 일성군인 간 아기. 또 외국 간 아기 배 타러간 사람 또 육지에 나가서 대학공부하고 직장 땡기는 그런 아이들. 또 일년에 어린 애기들 바다에 목욕하러 갔다가 해상사고 만나지 않게끔 하는 그게 ‘성세기한집’.

그리고 노모리. ‘노모리일뤼한집’은 요즘은 병원 피부과가 있어서 다 모든 피부가 나빠도 치료하지만, 옛날엔 어머니들이 그 당에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갔냐면 아기를 열다섯까지, 열다섯까지는 애기가 잘 푸더져. 얹어지고. 허물 많이 나고 그니까 물베리 강베리 허벅지시 배에 배창, 등에 등창 머리에 흥나물 너벅허물 이런 온 머리로 발끝까지 피부를 아주 깨끗하게 해 줘센 하고, 아기 엇인 사람 아기 잘 키워주고 열다섯까지는 애기를 잘 키워줍센 하는 당이고.

이 당은 ‘궤네기당’. 이 궤네기당은 아방국은 소천국 어명국은 백주. 이 소천국이 아들은 일곱째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일 막둥이 아들 막둥이는 막둥이 티 허여요망져. 이런 말이 있지 예.

경 하듯이 이 일곱째아들 소천국과 백주가 부부 인연을 맺어서 살았는데, 여섯 성제는 아길 나고 일곱째 이 아기가 벤거라. 베니까 백주님이 성관님이 서방보고 옛날엔 성관님이. 제주산은 한라산 제주산은 악산이난 한라산 옆에 송당 우이가 ‘오봉이군락’ 큰 그런 땅이여, 오봉이 군락에 가그네 벨진빳 돌진빳, 그만큼 크다는 거라. 벨진빳 돌진빳데 강 자수농업이나 지영 살게 마썸.

소천국이 감은(검은) 암쇠 용평길 잠드렐 지니까, 느진덕정하님이 밥을 해서 옛날에는 밥을 하민 동구랑착 동구랑착 행기 행기에 거렁 동구랑착에 쌍 올라간 보니까, 밥을 갈고이시난 밥 갈단 배고프걸랑 이 밥 먹읍센 하난 저런 담 위에 걸쳐뵤 간거라.

계난 한창 밥을 가노렌 하난 삼베중은 중이라. 이렇게 지나가다 배가 고옥 풀안 막 배고프난 받디 간 아이 나 밥 한직만 줍센 하난, 나도 아니 먹어본 밥 저 동산에 시난 먹읍센 하난, 그때에 말하기를 나가 안먹어 봐 부니까 제반삼수 위로 이렇게 제반 걸어뵤 가랜 헨 제반 걸어뵤 가신디

소천국이 막 배가 고픈거라 밥을 먹젠 보난 중이 먹어난 밥이거든, 그 밥을 아니먹고 감은 암쇠 용평기 다 빼어뵤 뱃북이에 이렇게 대영 받을 다 갈안

배가 고프니까 감은 암쇠 다 배견 쇠가죽, 옛날에는 손톱을 길게하니까 이 매툽 님은 손톱 멩개나물 꺾어단 이걸 고쟁이에 끼완 설피냥 설피냥은 연기가 잘 안나. 설피냥을 피왕, 익어시나 한점 설어시나 한점 다 먹영 쇠 한 마리 먹언. 뱃북이로 받을 갈안 내려오단 오름앞이 보난 또 노미 집이 쇠가 이셔.

그거까지 먹영 오난 각시한테 강 곶은거. 각시한테 강 곶은난, 아이고 놈이 집 쇠 먹어시난 이말은 어평. 땅과 물을 갈르렌 하난 백주님은 뱃대기 배연 그냥 웃손당에 살고, 소천국은 알손당에 내런 세명대 만난 노리 강록 사농하고 백주님이 애길나난 아들이 난거라.

일곱차 아들이 나난 자기대로 이름을 지은게 태자로 지은거라. 태자로 지어신디 영예 일곱 살 되가난게, 아방 이신 애기 호로자식 만들지 아니헨 업언, 아방 좃양간 독무릎에 앉히난 애기가 이 옛날엔 다 수염 기를 때라, 삼각수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난, 너 이 놈이 새끼 배 안네 이실 때도 아방 어멍 살림 갈라신디 어멍 배 배껏디 나오라도 불효자식이어.

경 동해와당 쇠철이 아들 불러다가 무쇠설각을 짱 뵤방 산곳들로 뵤방으로 띄와부난 강남천자국드레 가단 요왕황제국에 들어간거라. 겐 이런 큰 낭 무우낭 상가지에 걸어지난 들물살에도 찰랑 썰물살에도 찰랑 왕강싱강 왕강싱강 소리나난

황제국 대감님이 또 세 성제를 데령이실 때난, “큰년아 나가보라 셋년아 나가보라 어평 영 물갈라지는 소리가 왕강싱강 남시냐”

큰년하고 셋년이영 하는 말이, “아버지 간 보난 개남잎은 헤뜩헤뜩 모시잎은 반들 반들 산에 가문 계남잎하고 모시잎이 햇빛에 보면 한들한들허여” 경 그추록 해엿수다 게문, 족은 년 강 보라 족은 년은 강 영 바래난 그 들물살에 썰물살에 무쇠설각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헨 무쇠설각 이수다.

“큰 년도 못내리쿠다 셋 년도 못내리쿠다 족은 년이 내리운거라. 이 무우낭을 빙허게 돌아가고 빙허게 돌아완. 이젠 무쇠설각을 열젠 하난 큰년 셋년은 못 연거라.”

족은년은 곱닥한 코젍이 버선 신고 꽃신 신어낭 간 이 발로 삭 하게 밀으난 찰강 열언보난 사람이 앓았거든 장수가.

년 누게가 되겠느냐. 그때 태자가 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잘못 곶았당은 죽을 로구나. 그래서 나는 강남천자국에 세번난리를 막은디 막으레 가단 요왕황제국에 인

사차 오랏댄 했거든.

계문 우리집 사위들라. 큰년아 셋년아 그 방에 가랜 하난 눈도 아니 떤 바랜거라. 죽은 년한틴 가난 서른여덟 잇바디 이 이빨은 몇갠 중 모르지만 이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웃음을 웃었다는 거라.

다 보일 정도로 웃음을 웃은 부부간의 정 해영 사난. 느진덕정하님이 밥을 해영 가난 안먹언 니 무사 안먹엄시냐 하난

나는 장수이기 때문에 밥도 동이 술도 동이 모든 걸 다 하사 먹넨 하난

경험으로사 이 황제국에서 너 사위 하나 못맥이느냐

걱정하지 말앙 먹으라

경 동창고 서창고 남창고 열어도 황제국의 재산도 조반날이라. 그 장수를 동이로 행 맥이젠 하난 텅텅비난

“뜰은 나민 놈이 집 산천이여 죽은 년아 나고가라” 겐 강남천자국에 들어간거라.

옛날에는 그 나라에 전쟁이 이시면은 제일 머리 큰 장수 목을 베어당 바쳤지않우 파,

겐 열두머리 돋은 장군이엔 해.

열두머리 돋은 장군을 목을 베연 천제님 전에 들어가난 남방국이엔 한건 제주도. 남방국에 들어강 공헌 땅을 좃앙 강 땅세 물세 받아먹으렌.

겐 이제 들어오는데 소섬 ‘진질각’부터 들어와. 그디 ‘진질각’에 들으면 불빛 세와두고. 또 종달리 ‘두문리’ 그 계말, 그디 왕 불빛 세와두고 ‘지미봉’에 올라강 불빛 세와두고.

별방 상콧들로 올라간거라. 별방 상콧들로 올라 저 웃손당드레 바래난 어명이 ‘느진덕정하님’ 데련 좁은 목에 앓안 바람이 스며드는 바람이 옛날 날래질할 때 불림질할 때 골목에서 잘 해여. 높은 동산. 높은 동산에서 콩을 불럼시난 파뜩하게 바람 한 줄드레 쑥하게 부니까 퍼뜩하난 눈에 콩깍지가 들었거든.

느진덕정하님 상전님아 벨방 상콧드레 바래봬서, 세 살적에 죽으라고 버린 애기가 살안 오람수다.

애펜년 본 말랑 본디, 들은말랑 들은디 버리라. 후육노육 해당보난 장수가 오랏거든.

어머님아 나 오랏수댄 하난 무사 눈은 부변 앓입디가. “눈에 콩깍지 들었져” 영해 봇서.

부채를 해영 파뜩파뜩 푸끄난 그 눈에 콩깍지가 나온거라. 그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방 어명은 이디 좌정헉서.”

난 공헌 땅을 좃앙 가켄. 겐 공헌 땅을 좃앙간게 할로영산에 어승생 당돌오름 도리 앞병디 절로 오름을 내려내려 오당보민 칼손디 쌀손디 겐 김녕 지경동산은 이제 그 태왕사신기 했던 자리가 제일 높은디, 거기와서 이 마을더레 영 보니까 저 고살미가, 고살미가 이렇게 등돌아 앓아서.

마을을 저쪽으로 영. 아 고살미는 등을 전 앓았구나. 김녕목을 자손들은 앞에선 좋

은 말 행 돌아앉앙 공론하기 좋은 동네여. 겐 이제 글로 행 내려오란 이 오름에 저기가 망동산 제일 높은 데가.

저 망동산에 앉안 김녕마을을 휘하게 둘러보니까, 마을 안은 게우잔잔. 조용하고. 이제 이 세경땅은 들어보니까 가을이 들어가니까 조들이 곡식이 노릇노릇 노릇노릇 단풍지명 익었거든. 아 이 마을에 좌정혈 만하다. 저디서 낮에는 촌이슬. 밤에는 흥이슬, 낮에도 이슬이 내리고 밤에도 이슬이 내려.

경 행 앓아도 어느 누계 술 한잔 주는 조순 어시니까 이제는 이 마을에 송엄을 주되, 어떤 송엄을 주느냐면 요왕국에다 편지를 띄와. 요왕황제국 처부모님아 이 천하대촌 마을만 비바람을 불게 해줍서.

갑자기 이 바당으로 비구름이 올라오니까 다른 마을보단 이 마을만 엄청 비가. 다른 마을은 날이 좋아서 동복 월정은 농사를 걷워들이는데 이 마을은 농사를 걷어들이질 못해, 그래서 그 옛날도 조으니 으뜨니 기지니 찰방이 했던 그 사람들 이름이 마을 면장 어른덜 어른덜 이젠 다 어른아이 엇이 일렛뒤들을 일해동안 해먹였던.

일해상뒤 매난 그 현칩이 할망도 심방인거 같애 현칩이 할망 곧는 말이 저 망동산 드레 뵈서 장수가 오랏수댄. 경 해영 어디서 온 장수겐 하난 나는 아방국은 소천국 어멍국은 백주. 나는 일곱째아들 태잔데 이 마을은 땅도 나땅 물도 나물 자손도 나자손이여.

경해민 이 비를 끄차줍센 했거든. 겐 다시 편지 띄우니까 요왕에서 이젠 날이 좋은 거라 날이 좋으난, 시월 음력 시월. 제일 늦게 구월 시월이 다 그물언.

겐 고장수를 다 출려단 논거라, 출려다 낵 이제랑 좌정할디를 좌정헛서. 안빌레는 강 보니까 거기도 인발세발하고 식닥빌레엔 한 디도 강 보니까 너븐 빌렌디 인발세발하고, 어덜가리 남당아래 내리니까 남당 알은 그 바닷간디 개오줌내가 탕천했져.

요 아래 '괘네기' 알괘네기에 굴이 이서 거기는 안되켜, 경 이디 왕 이디들어가니까 요기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나무가 옛날엔 엇었거든 겐 밤이 되니까 별이 솜솜달이 솜솜 보쟁하민 이 안네서. 별이 솜솜 달이 솜솜 봐전. 절로 셋부름도 의지되고 하늬바람도 의지되고 나 일로 좌정하켜.

뭇을 먹읍네까. 나는 장수기 때문에 항밭갈쇄 먹은다.

게민 좋수다. 항밭갈쇄를 하나 갖다가 돌팩에 돔베에 이렇게 낵. 이젠 항밭갈쇄를 바치난 다 사람들이 얘기를 부잣집은 좋쿠다마는 가난한 집은 어떻합니까.

게민 통새에 남도구리 아래 옛날은 도구리도 나무로 만든 도구리라. 남도구리 아래 물주고 수금 주영. 항밭갈쇄만이만 그건 창지만 내여뵈 경 행 상을 바치랜 행.

경 문씨하르바님이 와그네 여기다 돌을 주서다가 돌돔베 돌저청을 맨들고. 가을이 들면 새비냥 빨갭게 새비 열매 열어. 그 새비냥을 꺾어다 고쟁이를 적꼬지를 맨들야. 겐 거기다 낵 이제 역기서 돏제를 해여신디 돏제를 하다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죽고 올라가고 죽고 올라가고 하다보민 저기 맨날 이 길이 영장이 올라가니까 놀랑내가 자꾸 들어오는거라. 놀랑내가 들어와가고,

무자 기축년 4.3사건이 되니까 산에 사람 못올라오게 되난 문전에서 해는 법. 그래

서 이 돛제신은 하나의 당신일뿐, 뭐 이게 옛날에 제주도 탐라문화제할 때 한 3.40년 전에 50년 탐라문화제가 한 50년 됴쑤다. 그때에 '영천이목사' 사굴에 영천이목사를 재현해가면서 돼지머리를 올리고 김녕은 돛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녀대신 돛제를 하는 중 아는거라. 겐 이건 전혀 아니.

김녕은 그냥 송당의 일곱채 아들로서 단지 편식 편식 왜 우리 애기가 키우당 보민 돼지고기 못 먹는 애기, 돼지고기 잘 먹는 애기 겐 이 애기는 일도 잘하고 고기도 하 영 먹곡 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일곱채 아들이 귀네기태자가 돼지고기를 먹어, 게민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 신이 어떻게 앳았냐면 땅세물세를 하니까 이 김녕땅에 오면 돛제를 해야돼. 이 땅에 살면. 이 밲디 농사를 지어서 막 잘되면 아이고 농사 잘 뿸수 다 하고, 요즘은 딸 아들 평등하지만 옛날엔 아들이 아주 귀했을 때 아들 나면 아이고 조상님 아들났수다 해여그네 돛제하고.

요즘은 대학시험 아무렇게나 보지 예. 옛날에는 대학시험을 아주 크게 생각해영 이 아이들 대학가려고 해도 돛제를 했어요 게 이 돛제신. 이 돛제신은 어떻든간에 김녕 마을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절대 다른 무서운 신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또 바다에 가면은 이제 '한개하르방' '한개할망' 또 당이 이서. 그거는 배가 나 가는 사람들이 배에는 옛날에는 터웃베 풍선베인디 나가면 사고를 만나니까 그 '한개 축항'에 이렇게 '개하르방', '개할망'을 모셔서 '세개하르방'하고 양쪽 포구에다 그렇게 는 그런 신당이 있고,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용머리 영등물 '서문하르방당' 파평윤 칩이서. 그 파평윤칩이서 이제 하는 당신인데 이 당신은 어떤 게 특징이나 하면 아기 없는 사람들 거기 가서 불공드리면 애기를 낳아. 진짜 내가 불공드려서 애기 난 애기 도 한 5명이상 되어. 그런 신이쥬.

겐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가 옛날 무자 기축년에 여기서 하다가, 이젠 집에서 했는데 이젠 여기가 올 수가 엳어. 그리고 옛날에 팔십년도에 미신파탄이렌 핸, 막 굻 막 을 때짱아, 양 굻 막을 때는 여기 와서 굻도 해났수다.

굿도 하다가 집이서 하니까 집이서가 좋지 여긴 못하짱아 양 또 굴이고. 그래서 여 기 굴은 그 이후에는 막아분거.

여기서는 안하고 집에서. 집에서 할 때도 병풍도 안치고 상도 안 펴고 문전에. 들 어오는 입구 문전에. 일문전에서 돛제를 합니다.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 아 이젠 마을 에 돛제 행사를 해 공동체로. 나가 하는데 그건 작년까지 해신디 9,10월에.

옛날에 어떤 에피소드도 있냐면 돛제고기는 예. 돛제하르방이 먹기 전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꼭 아프든가 이 또 돛제를 해야 돼여.